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9년 4월 1일 (월) 제 783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김 중 현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부활절
설교

부활의 첫 증인

<마가복음 16:1~11>



양 영 우 목사 (무코가와교회)

2019년도 부활절을 맞이 하여,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고자 결단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4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눈 앞에 나타셨음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와서 증거를 전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록한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펠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소년을 보았다. “너는 이 새를 어떻게 할래?” 스펠전이 묻자 소년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스펠전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 보내주었다. 이를 후 부활 주일에 스펠전은 이렇게 설교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사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다” 라고 설교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적 과제,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은 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주님의 12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일곱귀신에서 치유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먼저 나타났는가? 무슨 이유로 이런 축복을 받게되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배웁시다.

1.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

먼저 누가 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 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를 하시다가 일곱 귀신이나 들려 있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만났다. 그리고 일곱 귀신이 나가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일곱 귀신을 내쫓아내심과 병 고침의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2. 마지막 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구원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이 있었어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간 사람이다.

3.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마가복음 16장 9-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라고 하였다.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신도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인 부활절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으로 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신앙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公告《總會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募集人員：3名
- 支給金額：年額 200,000円 / 1人

- 支給期間：1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学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 書類提出先：總會事務局
- 締め切り：2019年4月30日必着

서부지방회

제35회한일교류신도대회

일본 기독교단 호교 교구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14일 (성년의 날) 일본기독교단 고베 영광교회에서 주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부제 「구원은 은혜입니다」 (엡 2 : 5)로 제35회 한일 교류 신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윤성철 대회 위원장 (고베교회)의 사회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성경 낭독을 하였고 한일 연합 합창단에 의한 할렐루야 합창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 : 25~37)의 제목으로 榮巖전도사 (고베 영광 교회)의 설교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한 후 예배 중에 새로운 성인 축복식이 거행되었고 세 명의 청년이 기쁨 속에 축복을 받았다.

예배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9분단으로 나뉘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의견 교환과 교제를 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시간은 팝페라 가수 김수진씨의 찬양과 간증으로 영혼의 치유와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개회 예배의 헌금은 구마모토 교회 (KCCJ) 와 구마모토 오이타 지진, 서일본 호우, 홋카이도 지진 이재민 (UCCJ)에 구제 헌금으로 바쳐지고 森章一 호교 교구와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협력 위원장 기도도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호교 교구가 27교회 83명, 서부 지방회가 6교회 53명, 총 136명이 참가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 KCCJ 서부 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호교 교구는 성령과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길 바란다.

(보고 : 윤성철장로)

岡山교회

창립50주년 기념예배 거행

제3대 담임목사 김성제목사를 모시고

2019년 2월 3일 오전11시, 오카야마교회(서부지방회)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창립50주년기념예배가 거행되었다.

예배는 오카야마교회 김승희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제3대 목사인 김성제목사(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가 마태복음20장 1~16절의 말씀으로부터 “빛나는 한 시간으로”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오카야마교회의 전사부터 초대교회 담임목사인 김덕화목사를 걸쳐서 현재 7대 목사까지 주의 인도하심으로 섬겨 온 것은 주의 깊은 긍휼과 계획에 의한 것이다. 김성제목사는 “50주년이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며 ‘해방에 의한 기쁨의 해’이란 것, 그리고 오카야마교회에 있어서도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제3대목사에 이르기까지의 경

위와 그 개인의 역사를 포함한 전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했다.

예배 후 온 교우들과 김성제목사와 함께 애찬회를 통해서 50주년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다. 주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뜻깊은 은혜스러운 날을 보냈다.

(보고 : 김승희 목사)



3.1 독립 운동 100주년 한국 탐방

일본그리스도교회와 함께

2019년 2월 25일(월)~28일(목), 3.1 독립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회의 “선교 협력 위원회”가 기획한 한국 탐방이 있었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6명, 일본그리스도교회에서 11명이 참가하였다.

첫날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에서 이치만 교수의 “3.1 운동과 한국 기독교”라는 강연이 있었다. 둘째 날은 경북군, 서대문 형무소 터를 견학한 후 수원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였다. 셋째 날은 탐골/파고다 공원, 인사동을 탐방한 후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 참가하였다. 수요 시위 끝 부분에 자유 발언 시간이 있는데 일본그리스도교회에서 참가한 히가 미에코 씨(오키나와 전도소)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였다. 오후에는 영등포 산업 선교회관에 가서 산업 선교회의 역사와 활동 등을 들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 곳의 교회로 나뉘어 수요 예배에 참석 하였다. 수요 예배에서는 일본그리스도교회에서 참가한 히사노 신이치로 목사, 후지모리 요시미츠 장로, 오오이시 슈헤이 목사가 설교 하였다.

참가자 감상.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아 놀랐다는 청년. 독립 운동에 참여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인이 얼마나 한국 사람을 짓밟았는지, 입힌 상처의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다. 탐방을 통해 알게 된 이상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힘겨운 일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탐방이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탐방 중에 방문한 여러 교회는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환영하고 많이 대접해 주었다. 수요 예배에서 국적을 넘어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보고 :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



총회 신학생 및 선교사 연수회 개최 선교사와 신학생 3명이 연수회 참가

한국의 선교협약교단에서 파송받아 본 총회에 가입해서 임지에 부임하게 되는 선교사 교육을 위한 선교사와 총회 전도사 고시 준비교육을 위한 연수회가 지난 3월10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16일(토) 까지, 재일 총회 신학교에서 3명이 참석하여 합숙으로 가졌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

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에큐메니칼 신학,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의 목회 전반, 예식, 예전, 그리고 총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연금, 총회 행정등의 안내를 받고 일본기독교단, 재일본한국YMCA, 일본기독교회협의회(NCCJ), RAIK, 마이너리티선교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금번 연수회에 참가한 선교사는 윤중헌목사(합동, 아카시교회), 구자우목사(고신,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이성준신학생(요코하마교회)이다.

프로그램 중에 관동지방회 각 교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환영과 접대를 받으며 각 교회의 역사와 현상, 선교적 과제를 나누기도 하였다.

주요기사

신도 공동연수회 개최 한국에서 류호준목사를 강사로

3월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복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류호준목사(평촌 무지개 장로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あいち健康プラザ에서 중부지방회와 중부지방 교회여성회의 합동으로 신도 공동 연수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은 50명이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말씀을 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강사 류호준목사는 “복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복음에 임하는 성도의 사명에 관하여 심도 있게 파고 드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교회가

건축부채 모두 상환 부천 제일감리교회의 지원으로

관동지방회 야마가타 우리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금년 1월에 교회당과 목사관의 건축부채 상환을 완료하였다.

총회와 아스카신용조합에서 담보 대출했던 부채를 동일본대지진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교회가 꾸준히 상환해 왔지만, 부천 제일감리교회(이민재목사)에서 남은 부채 1千万円 정도를 모두 갚아 줌으로 완납하게 되었다.

이로써 야마가타 우리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보고 : 이명신목사)



특별기고 3·1운동 현장을 다녀와서 大石周平 (日本キリスト教会府中中河原教会牧師)

2월25일(월)부터 28일(목)에 가진 <3·1 독립운동 연구지 탐방 여행>에 참가하여 100년이 지난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귀교회(KCCJ)와 일본그리스도교회(CCJ)가 20년 동안의 선교협력관계에 새로운 전망을 보게된 의미있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김병호 총간사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안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CCJ 6명, CCJ 11명이 25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이치만교수(장로회신학대학)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치만교수는 <3·1 독립운동>이라기 보다는 <3·1운동>이라고 하며, 그 선언의 민주 혁명적인 특징을 말하였습니다. 그 정의, 인도, 생존, 자유의 개념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컸다고 하며, 민족 독립의 기운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뿐만 아니라 지금(일본측의 사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민족의 틀을 넘어서 <우리는 자와 함께 우는>, 이것을 기념하는 의미(롬12:15)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일에 찾은 현장에서는 더욱 깊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이 뱃속에서 아니 발 밑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처형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붙들었던 '통곡의 미루 나무' 앞에서, 또한 일본 헌병이 총칼을 들고 불을 질러 사람들을 학살한 제암교회 터에서 우리는 절구했습니다.

고통의 침묵 속에서 사망자와 유족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속에 새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00주년의 큰 기념 행사가 마련된 장이었지만, 우리들의 여행에서는 오히려 기념사업의 무대에서가 아니라 땅 속에서, 즉 “입을 열어 (형제)피를 삼

킨 땅” (창세기 4:11)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1 선언은 비폭력에 의한 민주적 공동체 건설과 함께 동양 평화의 희망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언에서 <양심은 우리와 동존(同存)하고, 진리는 우리와 병진(併進)한다>고 했지만, 이 말은 우리를 맞이 해 준 한국 교회와 KCCJ 여러분이 보여 준 것과 같은 교제와 공생의 현상이 실현 된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약함에 동참하여 원수라도 받아들이는 공생의 현장에서는 죄를 깨닫고 절구하는 자에게도 평화와 화해를 말하는 담대한 용기가 주어집니다.

2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에는 오키나와에서 참가한 분이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 하는 이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저녁의 수요일에는 3교회에 나누어서 참석하면서 설교는 저희 일본인이 하였습니다.

‘적의(헤이트)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엡2:14)에 의지하여 죄의 고백과 화해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길... 아멘!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전국여성회

제20회 성경세미나 개최 증부와 공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와 증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회 성경세미나가 2019년 3월 7일(목)~8일(금) 나고야교회, 기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부제를 '지역과 함께 걸어가는 제일대한기독교회'로, 강사로는 고성 목사(기후교회)를 맞이했다. 개최예배는 김명균 목사(나고야교회)가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 후 이현지 회장의 사회로 활동보고 (전국여성회 각 지역 여성회)가 있었고, 저녁 식사 후 친목회는 김영자 부회장의 사회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날은 기후교회로 옮겨서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각 지방회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였다. 참가자 전원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다. 그 후 고성목사로부터 교회 건축보고가 있었고, 기후교회 여성회 두 분

의 간증이 있었다. 폐회예배에는 이시바시마리에 총무의 '여호와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폐회예배 헌금(36만엔)은 건축헌금으로 기후교회에 드렸다. 점심은 기후교회 여성회로부터 마음 따뜻해지는 환영을 받았고 올해도 많은 참가자(68명)가 함께 모여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세미나를 마쳤다. (보고 : 유정혜)



西南KCC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집회 澤正幸목사(日キ福岡城南教会)강사로

3월 3일 (주) 서남 KCC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집회를 가졌다.

사와마사유키(澤正幸)목사 (日本キリスト教会福岡城南教会)를 강사로 맞이하여 연대·평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문제와 교회가 그 벽을 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다.

목상의 시간을 가져, 독립 선언문(구어)를 낭독했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에서는 각 참가자의 생각이나 차이 등의 아픔을 표현하고 예정 시간을 50분 넘을 만큼의 교제가 있었다.

(보고 : 서남KCC)



5지방회의 정기총회 안내

< 関東地方会 第70回 定期総会 >

- ・日時 : 2019年 4月29日 (月) 10 : 30
- ・場所 : 在日本韓国YMCA、地下1階 Yスペース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TEL03-3233-0611

< 中部地方会 第56回 定期総会 >

- ・日時 : 2019年 5月2日 (木) 11 : 00
- ・場所 : 浜松教会
静岡県浜松市中区西浅田2-2-1、TEL053-458-1194

< 関西地方会 第70回 定期総会 >

- ・日時 : 2019年 5月6日 (月) 10 : 00
- ・場所 : 大阪西成教会
大阪市西成区梅南2-4-29、TEL06-6658-4203

< 西部地方会 第35回 定期総会 >

- ・日時 : 2019年 4月29日 (月) 10 : 30
- ・場所 : 川西教会
兵庫県川西市絹延町2-23、TEL072-759-2752

< 西南地方会 第69回 定期総会 >

- ・日時 : 2019年 4月29日 (月) 11 : 00
- ・場所 : 博多教会
福岡市博多区西月隅3-11-50、TEL092-414-8133



창립 70주년이 지나 하나님 인도로 새로운 만남

김 종 권 목사

히라노교회는 제일동포 중심의 교회입니다. 히라노라는 지역은 큰 비가 내리면 종종 히라노강이 범람, 홍수를 유발하기에 다이쇼연간에 구불구불한 히라노강을 직선화하는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에 종사하게 된 당시의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동포들이 징용되어와서 그대로 정착하여 히라노지역에는 제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947년 오사카후 야오시 류게쵸 타케후치 334번지에 목조 6평 임대주택에서 히라노전도소를 개소, 1952년에 제 1대 정인수목사의 위임식이 있었고, 1955년에 히라노교회 예배당헌당식, 제일대한기독교 히라노교회의 종교법인 인가, 현재는 제 5대제인 김종권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히라노교회는 대략 40명 전후의 신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중에 1/3의 신도가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의해 한 명의 베트남청년이 히라노교회에 인도되어, 지금은 베트남청년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청년은 히라노교회가 마련한 스태프하우스(교회 근처의 맨션 2실을 임대, 무료제공)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발적 교

회봉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새신자성경공부, 1:1성경공부를 거쳐 소그룹리더성경공부까지 열성적인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께서 특별히 그들을 들어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일꾼육성을 위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양육과 훈련,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힘쓰길 원합니다.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청년들의 모임